

제독차까지 등장... 코로나 방역 총력전

매주 금요일마다 2만5개소 대상으로 '일제방역' 오일장·버스터미널·사회복지시설은 우선 진행
 락스 희석 물 이용하는 실내 소독 방법도 공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방역작업도 크게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13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일제 방역소독의 날'로 지정, 민·관·군 합동으로 방역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깨끗한 방역소독으로 안전한 금요일 (일명 깨소금)'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방역은 도내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2만5개소

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오일장과 버스터미널,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방역이 진행된다.

이번 일제방역에서는 해병대 9여단이 화학전에 대비해 만들어진 제독차 1대와 병력을 투입, 제주시버스터미널에서 방역을 하기로 했다. 이 제독차는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도내 선별진료소 6개소와 제주민속오일장에서 병력 30명과 함께 방역에

나선 바 있다. 이어 민간 방역대상 시설물 관리운영자에 대해서는 자체 확보한 소독약품을 이용해 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민간단체가 요청할 경우 약품, 장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도 제주도는 지난 11일 도내 16개 위생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제방역 사전 협조 사항에 대해 안내하기도 했다.

일제방역과 별도로 제주도가 지난 달 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추진한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운동 결과 43개 읍·면·동에서 40개 자생단체가 다중이용시설 1만3479곳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손 소독제 5332

개, 마스크 7만6820개, 무선 소독살포 88개, 압축분무기 496개, 방역복 4664개, 소독약품 130개, 고글안경 260개 등의 물품을 보급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방역소독 방법을 공개했다. 이 수칙에 따르면 실내공간을 소독할 때는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을 희석해 소독 전 창문을 열고 천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과 바닥을 닦으면 된다. 희석 비율은 4% 락스의 경우는 물 1ℓ에 12.5㎖, 5% 락스는 1ℓ에 10㎖를 넣으면 된다. 실외공간에서 살균소독제를 살포할 때는 반드시 개인 보호복을 착용해야 하며, 소독약품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송은범기자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도, 읍·면·동주민센터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농어촌지역 거주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약자인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화장실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8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주거급여수급자(중위소득 45%이하)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주택은 장애인 자가주택 혹은 임대주택 모두 가능하며, 임대주택의 경우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 후 시공사 선정 및 사업관리 등은 제주도개발공사로 위탁해 진행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줌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불편 해소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지원 확대를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임시 휴점한 제주공항면세점. 지난 8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제주국제공항 내 JDC 면세점이 방역을 위해 개점 19년 만에 처음으로 12일 하루 휴점했다. >>관련기사 6면

구로 콜센터 여파... 밀폐시설 집중관리

도, 콜센터·PC방·노래방·게임장 등 관리체계 구축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빚어지면서 제주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열린 코로나19 대응회의에서 집

단 근무·이용시설에 대한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감염관리 책임자(과장급 이상)를 지정해 밀폐

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밀집해 접촉 감염 우려가 높은 콜센터와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게임장 등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 지역에서는 10인 이상 콜센터가 8개소, 노래방 328개소, 게임장 95개소, 영화관 7개소, 공연장 3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관리 내용을 보면 ▷해당 업소 직원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 접수 ▷사업장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사업장-보건소-소방서-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 추진된다.

또한 ▷시설 내 적당한 거리 및 밀집도 유지 ▷시설·비품·장비 등의 수시 소독 및 교체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위생관리 ▷개인위생수칙 등을 준수하라는 안내문이 업소마다 게시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밀폐된 시설에 대한 각별한 방역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원 지사의 지침을 바탕으로 민간시설이더라도 수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도, 하수처리대책 마련·추진

조류 영향 조사 후 방류관 연장 여부 등 결정

속보=서귀포시 보목·색달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된 오염물질이 조류의 영향으로 외해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연안으로 재유입되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된 오염물질로 인해 제주연안여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본보의 보도(3월 11일자 1면)와 관련, 올해 추진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해역 조류의 영향을 조사해 하수처리장 방류관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2022년부터 환경부와 재원협의 등을 통해 국비확보, 안정적으로 하수방류관을 연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하수처리장 방류관 추가 연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국비확보 기틀을 마련하고, 도내 8개 하수처리장 가운데 제주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으로 방류관 1.5km에 대한 예산 282억원을 확보했다.

제주도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현안해결 TF팀'에서 논의

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보목·색달 하수처리장은 1단계로 올해 증설·개량하고, 동부·서부·색달·남원 하수처리장은 2021년까지 증설(4만t/1일)·개량하고 제주하수처리장은 2단계로 오는 2025년까지 13만t 규모로 증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보목·색달·서부 하수처리장의 주변해역 수질평가치수 5등급과 관련해서는 주변해역은 1~3등급이고, 방류구에서만 3~5등급, 제주·동부·대정·성산·남원하수처리장 주변해역 4등급에 대해선 주변해역은 1~3등급이고, 방류구에서만 2~4등급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의 조사 결과 남원·보목·색달하수처리장은 대정군군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동부하수처리장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납·아연)이 검출됐다. 고대로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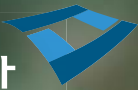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감추어도 느껴지는 대한민국 미소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는 대한민국 미소의 힘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른 소통의 자세로 나보다 남을 위해
따뜻한 미소를 지닌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코로나19 예방하기!!!

① 함께있는 자리에엔
마스크 꼭! 꼭! 해요.

② 손은 30초 이상,
자주 씻어주세요.

③ 기침이 나오면
옷소매로 가려야 해요.